

###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몰락하고 있는가? - 베네수엘라, 브라질을 중심으로

안태환 HK교수  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#### ■ 주요 내용

- 중남미 정치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의 정치지형이 바뀌었고, 베네수엘라 역시 우파 정치지형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긴장 속에 있음.
-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아르헨티나의 헤게모니 변화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전반적인 몰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.
-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좌파 정부가 경제 산업 정책에서 진정한 변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임.

**KIEP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  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 이슈 현황

☒ **라틴아메리카는 현재 중남미 좌파 정치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의 정치지형이 바뀌었고, 베네수엘라 역시 우파 정치지형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긴장 속에 있음.**

- 멕시코의 '라 호르나다'지 칼럼니스트인 기예르모 알메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에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, 이러한 국면을 신자유주의 우파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
  -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특히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.
  -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변동은 2016년에 들어와 문제가 불거졌지만, 그 시작은 2015년부터임.
  -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몰락하고 있는지, 아니면 위기를 통과하면서 재도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.
- 현재까지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, 볼리비아의 좌파 정부는 유지되고 있음.
  - 주류 언론들은 당장이라도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가 무너질 것 같이 보도하지만, 사실은 그렇지 않음.
  - 예를 들어 지난 9월 1일, 베네수엘라 야당이 주도한 반정부 대중시위 외에 친차베스 진영의 대중 시위도 발생
  - 또한 최근 베네수엘라 마르가르타 섬에서 약 120여 정부 대표가 모인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 회의가 개최되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도 함.
  -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경제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여, 마두로 행정부에 비상권력을 부여함.
  - 베네수엘라 NGO들은 야당이 마두로 대통령의 국민소환투표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 명단에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비판하며, 이를 UN 인권이사회에 문제 제기함.
  - 이에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민소환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

☒ **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원자재 수출이 축소되면서, 다국적 기업과 연관된 라틴아메리카의 자본가들은 이윤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음.**

- 이들은 본인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우파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총 노동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을 이용하고 싶어 할 것임.
- 즉 사회적 임금(연금, 휴가, 보상, 의료, 교육, 기타 다양한 보조금 등)의 축소를 지향하고자 할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'의회 쿠데타'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.

- 왜냐하면 좌파의 시각으로는 법적으로 합법적 과정을 거쳤지만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논리이고, 우파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임.

**☒ 라틴아메리카의 헤게모니가 좌(左)에서 우(右)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.**

-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정부의 정착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지라도,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정부가 건재하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노선으로의 복귀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.
  -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혁명이 상대적으로 성공하여 라틴아메리카 내 정치 지형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큰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임.
  - 예를 들어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헤게모니가 우측으로 선회한 이후 베네수엘라를 메르코수르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을 알 수 있음.
- 9월 1일, 베네수엘라 야당(MUD)이 주도한 “카라카스 접수”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
  - 야당이 이러한 대규모 대중시위를 주도하는 이유는 브라질과 유사하게 의회 권력을 통한 헤게모니 확산을 거쳐 국민 소환투표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준비일 것임.
  -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회 권력의 진행을 지원하는 것일지도 모름.

## 2 원인 분석

**☒ 심각한 경제적·정치적 위기 앞에서 베네수엘라 친차베스 진영의 ‘사회주의 운동(Marea Socialista)’ 세력은 현재 외환통제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**

- 현재 베네수엘라 야당에는 파시스트적 극우세력 외에 우파 사회민주주의 세력도 합쳐져 있음.
- 차베스 혁명의 가장 큰 강점은 많은 기층대중<sup>1)</sup>을 언제라도 거리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대중 권력을 상당한 정도로 만들었다는 점임.
  - 이와 더불어 사회권을 인권의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게 한 점, 대의정치 미작동 문제에 대한 비판과 보완 장치 마련, 지지자들의 영토성 확보를 통한 자율성 증대, 권력과 자본의 사회화 추진 등도 차베스 혁명이 남긴 장점들로 꼽을 수 있음.
- 그러나 베네수엘라 혁명의 가장 큰 약점은 약 15~6년간의 좌파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석유 수출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농업 정책을 비롯하여 경제, 산업구조의 실질적 변화에 성공하지 못

1) 기층대중이란, 일반적 의미의 대중이 아니라 경제적·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, 예를 들면 실업자, 행상 등의 비공식 노동자들을 가리킨다.

했다는 점임.

- 아울러 노동자 공동경영, 조합운동 등의 새로운 정책들도 기대한 만큼 성공하지 못하였음.
- 기존의 경제구조하에서 베네수엘라 산업 정책의 획기적 전환은 실현하기 어려웠으며, 특히 그동안 존재했던 행정관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더욱 악화하였음.

**▶ 브라질의 지우마 정권은 기층대중에 비해 중간 계급의 시민들이 탄핵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.**

- 브라질의 경제가 호황일 당시에는 국가의 사회적 재분배 정책 강화에 대해 기득권층과 중간계급이 이를 용인해주었으나 경제가 어려워진 현재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짐.
-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자 긴축 즉, 사회 정책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에 타협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임.
- 그러나 이러한 브라질 대통령의 애매한 정책 방향이 브라질의 정치적·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음.

**▶ 아르헨티나의 좌파 지식인인 아틸로 보론은 이번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통해 3가지 결론을 도출**

- 우선 여당이 가져왔던 중도 우파에 대한 양보와 타협 자체가 전략적 실수였다는 점으로, 이는 구체적으로 테메르 부통령의 배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.
- 브라질은 진보적 사회 정책을 통해 기층대중에 유리한 정책을 집행했지만 가난한 대중의 소득 자체를 늘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중의 정치적 지지가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음.
  - 더불어 이는 브라질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대중에 의한 탄탄한 자율적 조직체 형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.
- 자유주의적 제도 즉, 의회 전략을 너무 의지한 것이 문제임. 이는 탄핵 조짐이 보인 초기 단계에서 ‘길거리 민주주의’ 전략이 더욱 필요했다는 주장임.

**▶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아르헨티나의 헤게모니 변화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전반적인 몰락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.**

- 최근 브라질 언론 보도에 의하면, 현재 대통령이 된 테메르에 대한 지지율은 약 2%에 지나지 않고, 약 60%의 시민이 그의 퇴임을 원하고 있다고 함.
  - 브라질 대중의 이러한 반응은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하는 동안 전략적인 실수도 많았지만, 극

빈율을 많이 줄였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사회 저변의 반응으로 볼 수도 있음.

- 그동안은 이러한 기층대중의 애매한 반응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음.
-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면에서 호세프 정권의 퇴진은 실현되었지만, 우파 헤게모니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심지어 현재 브라질에는 테메르 대통령을 대신할 우파 측의 대통령 후보도 없는 것으로 전해짐.

### ☒ 이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사회학자인 마리스테야 스밤파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내 정치지형의 변화를 '진보주의-이후'의 시작으로 인식함.

- 그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내 좌파의 위기에 대해 다양한 원인<sup>2)</sup>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국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분위기로 보고 있음.
-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기층대중 중심의 사회운동이 추동한 진보주의의 큰 실수는 사회운동에만 매몰하여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정당정치, 의회정치의 제도적 힘을 경시했다는 것임.
- 좌파 정부들의 상층부가 기층대중의 시위 등 풀뿌리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, 전통적인 노동운동 조직, 원주민 조직, 농민 조직, 국영기업의 노조, 군부 일부 등 전통적·제도적 조직의 역할을 정치 지형의 변수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함.

## 3      **전망과 시사점**

### ☒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변혁을 단순히 좌파에서 신자유주의의 복귀라고 인식해서는 안 됨.

- 이는 이분법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인데, 그동안 좌파 정부들이 스스로 변혁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왜냐하면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좌파 변혁의 동력은 대통령 등 지도자와 정당, 즉 엘리트들이 아니라 대중이 중심이 된 반 헤게모니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이며, 현재 이들의 힘은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임.

2) 예를 들어, 미국의 주류 미디어를 통한 압박, 우파의 다양한 공세 전략 등

☒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는 제도정치 상층부인 공중전의 변화로 볼 수 있음.

- 스밤파에 의하면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아르헨티나에서 우파의 약진은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 확립을 통한 ‘제대로 된’ 약진이라기보다, 좌파정부에 의해 제약된 이윤 획득 구조를 자본가들이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조급하고 불안한 대처에 불과함.
- 그는 현재 우파의 공세를 다국적 기업과 연동된 우파가 ‘인공적인 방법<sup>3)</sup>’을 통해서라도 대중으로 하여금 좌파 정당과 리더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‘은폐된 공격’으로 인식함.
  - 왜냐하면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내 반 헤게모니적 사회운동 세력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.
- 베네수엘라의 경우, 잘못된 외환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<sup>4)</sup>를 불러왔지만, 사회 구조적 변혁 과정<sup>5)</sup>은 장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.
- 따라서 ‘진보주의-이후’의 시각에서는 노조와 정당 등 전통적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함께 이룩한 기층대중에 의한 정치적 변혁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켜야 함.

☒ 그러나 가장 중요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문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좌파 정부가 경제 산업 정책에 있어서 좌파적이지 않은 정책수단들을 도입하면서 진정한 변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임.

- 그동안 베네수엘라, 브라질에서 좌파가 권력을 장악했던 이유는 경제적·사회적 위기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중들에게 호응했기 때문임.
- 좌파정부 역시 당연히 국가 발전, 경제 발전을 위한 ‘주류적’ 정책을 수행함.
  -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외환 정책의 실패, 즉, 생필품의 공급 실패에서 뚜렷이 드러나듯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‘관료 엘리트’와 ‘외국 자본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.
  -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안적, 유토피아적인 정치의 비전과 구체적인 경제 산업정책을 연결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답을 대중이 아닌 엘리트로부터 얻음.
-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오랜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대안적 추구는 실행되지 못한 셈이 되었으며, 이는 농업과 광물 추출의 경제 구조를 대신할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임.
- 따라서 이들은 경제정책 부문에서 우파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없었으며, 자유주의적 산업정책

3) 브라질의 경우를 예로 들면, 의회 쿠데타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.

4) 특히 식품과 의약품의 품귀현상 등

5) 예를 들어, ‘꼬무나스’로 불리는 자율적 공동체 조합의 활성화와 주민평의회, 도시토지위원회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등

을 통해 부르주아 발전이 이루어지게 됨.

- 그러나 이들 중산층 내지 중간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키워준 정부와 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함.

- 즉,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향하며 일차산품 수출경제의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를 이루고자 했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달러화 획득을 위해 다시 일차산품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경제 산업의 질곡 때문에 좌파 정부들은 장기적으로 세계 체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비전과 획기적인 사회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.
- 그러나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파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, 즉, 헤게모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.

**▶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때문에 정치적·사회적 구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함.**

- 전반적으로 중간계급의 경우 소비주의,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사회적 파편화도 진행되었음.
-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기층대중이 주체가 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비판적 사회운동의 힘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, 그렇다고 전 지구적 질서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님.
- 결론적으로 최근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‘쿠데타적’ 사건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,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함.
- 더불어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(1980년대 이전)의 이분법적 계급 투쟁의 관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음.
-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‘정치’를 바라보는 관점을 좌파 정부들이 바꾸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.

**▶ 그동안 브라질의 여당과 정부는 사회운동 세력이 자신들의 편을 들 것으로 기대했지만, 시간이 갈수록 대중동원능력과 저항능력을 잃어갔고 ‘중도화’되어 결국 탄핵이 이루어지게 됨.**

- 예를 들어, 구체적인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‘토지 없는 농민운동(MST)’ 세력에게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해 준 것보다 실제로 해준 것은 없으며, 더욱이 정부는 학생, 노동운동 세력을 탄압하였음.
- 실제 경제정책은 일부 재분배 정책을 제외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모델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던 것임.

-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개인주의, 소비주의의 일상 문화 모델을 점진적으로 소규모 자율조직을 통한 공동체주의로 나아가느냐 하는 데 있음.
- 좌파세력은 이를 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, 이를 구체화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.

#### EMERiCs

##### 출처

Guillermo Almeyra, "? Por que el golpe en Brasil?", La Jornada, <http://www.jornada.unam.mx/2016/09/04/opinion/014a1po1>, (2016.9.21일 출력).

Atilo Boron & Paula Klachko, "Sobre el 'post-progresismo' en America Latina: aportes para un debate", La Haine, <http://www.lahaine.org/blog.php?disp=impr&p=90816> (2016.9.26일 출력).

Diario do Brasil, 2016.9.20일자, "Delacao da Odebrecht cita os nomes de Jose Serra e Michel Temer. Serra teria recebido R\$ 23 milhoes em propina" (2016.9.26일 출력).

Ryan Mallett-Outtrim, "No Recall Referendum in 2016, confirms Venezuela's Electoral Council", <http://venezuelanalysis.com/print/12654>, 2016.9.22일자 (2016.9.26일 출력)